

하천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1

River & Culture

신천의 역사와 문화



지 홍 기 | 한국수자원학회 부회장
영남대 교수 (hkjee@yu.ac.kr)



(그림 1) 신천의 과거 및 현재 모습

신천의 원류를 찾아서

흔히 우리는 신천이라고 하면 '새로 생겨난 하천'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신천을 따라 고인물들이 얼을 지어 발견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하천으로 생각된다. 신천이라는 말은 이미 <경상도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에 "신천: 대구부 동쪽 4리에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대구 분지를 자세히 조사해 보면 현재의 신천은 옛날 대구 시가지로 흘렀던(현재는 북개도로로 변한 곳이 대부분이다) 대구천과 동쪽의 금호강 '사이'를 흐르는 하천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 하천을 우리말로 '사이내', 혹은 '새내'라 불렀다. '새내'를 한자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간천(間川)' 이 아니라 '신천'이 되었고, 이후 사람들은 한자어의 뜻대로 '새로운 내'로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신천은 대구시의 남쪽에서 북쪽으로 관류하는 하천으로 위도 128° 35' ~ 128° 34', 경도 35° 45' ~ 35° 13'에 위치하며 남부 산지인 비슬산(EL.1,064m)과 최정산(EL.915m)에서 시작하여 용계동에 이르고 팔조령 부근에서 시작하는 대천과 합류하여 대구 시가지를 가로질러 침산동에서 금호강으로 합류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류 하도연장이 12.5km, 유역면적이 165.3km²인 지방2급하천으로 서부 구릉지와 동부 구릉지 사이에서 여러 차례 유로를 이동 혹은 복류하면서 큰 선상지를 형성해왔으며, 이 선상지 위에 대구 시가지의 중심부가 형성되어 있다.

대구분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 금호강으로 유입하는 신천은 그 발원지가 두 곳으로 분류되는데, 하나는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 우미산 남서쪽에 위치한 밤티재(EL.570m) 부근이며, 또 다른 하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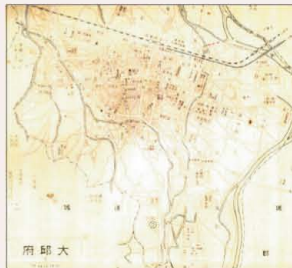
비슬산 북동사면에서 발원하는 총 길이 13km에 달하는 용계천 상류이다. 밤티재에서 출발한 신천은 대구시 달성군 용계동 가창교 남쪽에서 신천의 지류인 용계천을 합류하여 대구시 북구 침산동 침산교 부근에서 금호강으로 합류하는 대구의 중심하천이다.

신천 유역의 대략적인 분수계는 동으로는 상원산-동학산-병풍산-대덕산-당고개-두리봉-모봉-형제봉-효목공원-신암공원-연암산, 서로는 유역 내 최고봉인 비슬산-청룡산-달비고개-월배산-앞산의 고산골 서편 능선-대봉공원-침산, 남으로는 비슬산-힐티재-통점령-밤티재-삼성산-상원산으로 이루어진다. 즉 신천의 유역형상은 동·서·남부가 산지로 둘러싸여 있는 반면에 북쪽이 트여 있는 일종의 말발굽형이다.

신천이 통과하는 지역 중 대구 일대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형들은 소(pool)와 여울(riffle), 습지, 포인트바, 하식애, 기반(퇴적암)하상, 공룡발자국 화석 등이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보는 신천의 대부분은 인위적으로 변화된 부분이 많아 자연상태의 지형경관은 많이 사라진 상태이다.



〈그림 2〉 신천의 발원지 및 지리적 위치



〈그림 3〉 1924년 8월에 발행된 조선교통지도

과거 이조 중엽까지 신천의 구 수로는 용두산 밑에서 구 효대앞→수도산→반월당→동산병원→달서천으로 흘러 금호강에 합류하므로 매년 장마철이 되면 대구부지의 중심부를 물바다로 만들어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하였다. 걸핏하면 물이 넘어 논밭을 휩쓸어 버리는가 하면 때로는 성내에까지 물이 넘쳐 들었다고 한다. 또한 이 강으로 말미암아 성내는 항상 습기에 차 있었고, 여름이 되면 강물이 불어 길을 끊어 버리기 일쑤였다고 한다. 어쨌든 이 하천은 그 당시 대구 시민들에게 큰 두통거리여서 수로를 변경할 필요가 절실했던 것이다.

1776년 7월 이서가 대구판관으로 부임해오면서 물줄기를 중심부로 흐르지 않게 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였으나 막대한 비용이 들어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부임한지 2년 뒤인 1778년에 이서는 사재

를 털어 상동교 근처에 독을 쌓아 대구천으로 흘러들어오는 물길을 막아 그 수량을 줄였고, 대구의 주된 물줄기가 현재의 신천으로 흐르게 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대구 중심부에 사람이 모여 살기 시작하지 수백 년 동안의 숙원사업이었던 수로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당시 교동에 있었던 공자묘와 주민의 침수위험도 줄었다. 주민들은 이판관이 쌓은 신천 제방이 중국 송나라의 석학이던 소식(蘇軾)이 항주자사(杭州刺使)로 있을 때 축조한 제방을 소공제(蘇公堤)라고 명명한 것을 본떠서 이공제(李公堤)라고 하였다.

그 후 1797년 1월에 동상면과 서상면 사람들이 힘을 모아 이비(礮)를 세웠다(그림 4). 비의 측면에 「정사 정월 일 동서상립(丁巳正月日東西上立)」이라고 새겨져 있고, 후면 비문에 「판관이후이서(判官李侯諱李)란 문면(文面)을 참작해 보면, 1794년 그가 죽은 3년 뒤 정사 정월 일(丁巳正月日)에 세운 듯하다. 원래 비가 서 있었던 곳은 현재의 수성교 서쪽 제방의 남쪽 100m 지점이었으나 그 부근에 방천시장이 생기면서 번영회가 발족되어 파괴된 비각을 초라하나마 다시 세우고 원래 같이 비각 안에 있던 「군수(郡守) 이후범선영세불망비(李侯範善永世不忘碑)」도 함께 보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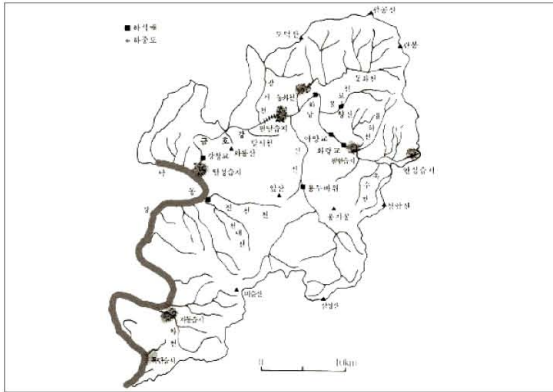
또한 번영회에서는 방천시장이 이공제를 끼고 있기 때문에 매년 음력 1월 14일 밤에 이 두개의 비석에 향사(享祀)를 지내왔다. 그러다가 1971년 11월 20일 제방 위의 도로확장공사로 중구 대봉1동 655번지로 이건 하였으나, 1986년 신천고속도로 확장공사 당시에 수성교 서편 지하도 지하에서 또 다른 이공제비가 발견되었다. 이 비는 1808년(순조)에 세운 것으로 1797년에 세운 비가 초라하여 그의 업적을 영구히 기리고자 다시 비를 세운다고 비문에 새겨져 있어 함께 보존하게 되었다가 지금은 상동교 근처로 이전하였다.



〈그림 4〉 이공제비

신천의 원류에 대한 이견(異見)

그림 5에서 보는 것처럼 대구 중심부를 흐르면서 신천의 발원지와는 다른 하천으로 대구천과 달서천이 존재한다. 또한 신천으로 바로 유입하는 지류로는 대구천과 이천천이 있다. 대구천은 앞산의 삼정골과 인근의 소규모 구릉지에서 발원하여 흐르면서 봉덕시장 부근에서 곧바로 북류하여 건들바위 근방에서 두 갈래로 갈라져 흐른다. 이 중에서 한 줄기는 건들바위, 유신학원 네거리, 구 중앙도서관, 대구광역시청 옆, 칠성시장을 지나 도청교 하류 약 150m 부근에서 신천으로 유입하고, 다른 한 줄기는 건들바위, 덕산동의 구릉지 가장자리, 반월당 네거리, 계산성당 앞을 지나 대명동과 남산동 일대의 구릉지에서 흘러내리는 또 다른 하천과 동산(東山) 부근에서 합류한 다음, 오토바이 골목으로 유명한 인교동을 지나 달성공원 앞에서 다시 내당동, 비산동 구릉지(두류공원이 위치하는 두류산 일대)로부터 흘러나오는 달서천과 합류하여 침산동에서 금호강으로 유입한다.



〈그림 5〉 대구의 주요 지형

한편 1924년에 발행된 조선교통지도에 의하면 대구천과 이천천의 구별이 명확하다(그림3). 그러나 조선교통지도가 발행된 이후 대구는 일본인들에 의해 추진된 대구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하천의 유로 변화가 생겨나게 된다. 즉 대구천 발원지 일대로부터 이천교에서 대백프라자가 위치하는 신천 쪽으로 높은 제방을 쌓아 대구천의 물 흐름을 일부 돌린 이후부터 건들바위 앞 대구천의 흐름은 끊어진다. 대신 대구천으로 흐르던 물은 이천천으로 유로가 변경되어 신천으로 유입되고, 그 일대는 습지로 변한다. 이러한 습지는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도 지속되어 미나리밭으로 이용되었다. 또 습지로 될 무렵의 주변 경관은 절벽 아래의 습지 가까이는 논과 밭으로, 약간 높은 평지는 과수

원으로 이용되었고, 민가는 병영(兵營)앞 길에 마을을 이루고 있었다.

그 후 습지조차 한국전쟁 이후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부터 각종 개발로 인하여 점차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건들바위에서 북쪽인 유신학원 네거리, 시립도서관, 시청 옆, 칠성시장 안을 통과했던 대구천도 이천교 일대에 축조된 제방으로 인하여 흐름이 막히게 되면서 거의 건천화되어 1930년대의 대구도시구획정리 때 흔적조차 사라진다.

이처럼 신천의 지류인 대구천과 이천천의 발원지는 신천과는 달랐다. 그러나 지금까지 신천의 원유로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구시 달성군 가장면 우록리 우미산 남서쪽에 위치한 밤티재 부근과 비슬산 북동사면에서 각각 발원하여 흘러오던 신천이 상동교 부근에서 두 갈래로 갈라져 하나는 현재의 유로를, 또 다른 하나는 대구천을 형성한다.

둘째, 상기의 발원지로부터 흘러나온 신천이 대구의 한 가운데를 관류했던 대구천이다.

위에서 언급한 신천 원유로에 대한 견해 중 전자는 조선 정조 2년인 1778년 대구 판관 이서가 사재를 들여 상동교 부근에서 분류하는 신천의 물줄기 중 하나인 대구천 일대에 제방을 쌓아 현재의 신천으로만 물을 흐르게 하여 대구를 수해로부터 안전하게 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후자는 신천의 원유로가 대구천이었는데, 대구 판관 이서가 사재를 들여 현재의 신천으로 새로운 유로를 만들어 이곳으로 물이 흐르게 하여 새롭게 생겨난 하천이라는 의미에서 신천으로 명명하였다.

이렇듯 신천의 원유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지만 신천은 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구 지역민들의 가슴 중심에 자리하면서 지역민들에게는 수원지로서 또한 시민들의 휴식처로서 매우 중요한 생태기능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대구의 정체성 확립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일제의 저항과 국채보상운동의 발원지

◎ 일제에 저항한 풍류시인

수성별이 낳은 일제에 저항한 대표적인 문인으로는 이상화 시인이 있다. 호는 상화(尙火)이고 대구 신천이 펼쳐진 수성들 출생이다. 경성중앙학

교와 일본 동경외국어학교 불어과를 졸업하였다. 1922년 현진건의 소개로 박종화 · 홍사용 · 나도향 · 박영희 등과 《백조》 동인이 되어 본격적인 문단활동을 시작하였다. 1925년 박영희 · 김팔봉 · 김기진과 함께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KAPF)>의 창립회원으로 참여하였으며, 1926년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발표하였다. 1927년의 열단 이종암 사건에 관련되어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이상화는 《참조》, 《폐허》 등의 상징주의 · 퇴폐주의운동에 가담하여, 초기에는 여러 경향의 시를 썼으나, 그 뒤 현실세계로 눈을 돌리고 신경향파의 대두와 함께 경향성을 띤 작품을 썼다. 주요 작품으로 《말세의 희탄》, 《가을의 풍경》, 《나의 침실로》, 《단조(單調)》, 《이중의 사망》, 《이별》, 《가장 비통한 기원》 등이 있다. 발굴된 작품으로는 백기만의 《상화와 고월(古月)》에 수록된 시작 16편을 비롯하여 58편이 있다. 옛 신천의 물결이 달성공원에 그를 기리는 시비(詩碑)가 세워졌다.

◎ 민족의 자존을 지킨 국채보상운동

1907년부터 1908년 사이에 전개된 국권회복운동은 신천 수성벌에서 일어났으며, 이 운동은 일본에서 들어온 국채를 국민의 모금으로 갚는 운동으로 1904년 제1차 한일협약 이후 한국에 재정고문으로 부임한 메가타[目賀田種太郎(목하전종태랑)]는 1906년까지 4차례에 걸쳐 1,150만 원의 차관을 도입하였다. 일본측의 차관공세의 목적은 첫째, 한국의 재정을 일본재정에 완전히 예속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그 차관으로 식민지 건설을 위한 정치작업(整地作業)을 하지는 것으로 정부와 민간의 경제적 독립을 위협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당시 한국의 토착자본은 일본차관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운동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07년 2월 대구의 광문사(廣文社) 사장 김광제와 부사장 서상돈은 단연(斷煙)을 통하여 국채를 갚아 나가는 국채보상운동을 제창하였다. 1907년 2월 21일자 《대한매일신보》에 취지문을 발표하고, 민회소(民會所), 즉 단연회(斷煙會)를 설립하여 직접 모금운동에 나섰다. 대동광문회(大同廣文會; 대구 廣文社)의 국채보상운동 발기가 《대한매일신보》, 《제국신문》, 《황성신문》 등에 보도되자 각계각층의 광범한 호응이 일어났다.

신천의 젓줄 : 수성못과 가창저수지

◎ 수성못

신천의 물줄기가 이 곳 수성못에 머물며 달구벌을 풍요롭게 해주면서도 대구시민과 그 애환을 함께 해온 수성못은 1925년 한 일본인이 황폐한 수성들을 옥토화하기 위해 당시 총독부 지원을 받아 1년 만에 완공했다고 알려져 있다. 수성못이 관광명소로 인기를 구가한 것은 1960~80년대이다. 1983년 동대구로와 연결되는 유원지 진입로 확장공사를 거쳐 도시근린 유원지로 개발되면서 현재와 유사한 모습을 갖췄다. 페인트로 '관광'이라고 적은 나룻배와 우산을 세운 2인용 보트, 거북선 모양의 중형 유람선이 등장했다. 나무그늘에서 팽과리를 치며 노는 사람도 많았다. 박 대통령이 즐겨 묵었다는 인근 수성관광호텔에는 신혼여행객들이 찾으려서 덩달아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그림 6. 1930년대와 2000년대의 수성못 주변 모습

◎ 가창저수지

가창댐은 달성군 가창면 용계동과 오동의 신천 지류에 걸쳐있는 상수도 수원용 저수지이다. 이 댐은 오동의 남산인 청룡산을 최고봉으로 하고 동쪽으로 EL.654m 고지와 EL.245m 고지, 서쪽으로는 EL.624m 고지를 연결하는 분수령에서 북쪽으로 경사진 지점에 축조하였으며, 집수면적은 43㎢에 이르고 있다.

대구에서 상수도 설치 문제를 처음 거론한 것은 1906년의 일로서, 일본의 조선침략이 노골화되어 1905년 11월 드디어 일본사람들에 의해 강제적으로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상당수의 일본인들이 대구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이들 대구 거주 일본인들에 의해 상수도의 설치 문제가 처음으로 거론되었다.

가창수원계통의 상수도 설치공사는 일제 식민통치시대였던 1914년, 1924년 그리고 1930년의 세 번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1945년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이곳으로부터 하루 평균 4,800m³의 수돗물이 주로 시내 중앙지역에 공급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신천의 젓줄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7. 가창댐의 모습

조국 근대화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신천

민족 수난의 땅 수성벌을 언제나 지켜주었던 신천은 오늘도 유유히 흐른다. 한때는 민족의 대표시인이었던 상화 선생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시를 읊으며 유년시절을 자란 이 땅의 무수한 인격들이 있었기에 일제를 극복할 수 있었고, 6·25의 국난 앞에서 이 땅을 끝내 지키 수 있었다. 신천과 수성벌에서 민주역량의 운집이 없었던들, 2·28 민주화 운동이 없었던들 과연 수성벌의 번영이 있었을까?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신천을 사랑하고 신천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뛰고 또 뛰고 있지 않은가. 신천을 살리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가상하며 금호강 물길을 신천으로 끌어올리는 대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

참고문헌

대구의 '누정록'.

전영권 (2004) '대구 신천 유로에 관한 새로운 해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inchunlove.wo.to/>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daegustory.com/>

